

SK케미칼, 바이오디젤 공장 “가동”

300억원 투입 울산 12만톤 플랜트 완공 ... 경유 엔진에서도 사용 가능

SK케미칼이 바이오디젤 플랜트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K케미칼은 바이오디젤 상업화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울산에 12만톤 플랜트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월 4일 밝혔다.

식물성 유지를 화학제품인 메탄올(Methanol)과 반응시켜 기존의 경유자동차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석유제품 형태로 생산한 것으로 연소효율이 높고 황화합물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연료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은 2009년 30만톤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4>